

WS 2차전 휴스턴, 극적 승리 시리즈 원점

연장 11회 '스프링어 투런포' 연장전서 5개 홈런 주고 받은 끝에 7-6 1점차 승리... 내일 휴스턴 홈 3차전

휴스턴 애스트로스(20승 17패)가 연장전에서 홈런 5개를 주고 받는 극적인 연장 승부 끝에 승리하며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렸다.

휴스턴은 2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다저스와 2017 월드시리즈(7전4승제) 2차전에서 11회초 터진 조지 스프링어의 투런포로 7-6 승리를 거뒀다.

전날 애시슬레이븐 커쇼와 가을 사나이 저스틴 터너의 투런포를 앞세워 기선제압에 성공한 다저스는 리치 힐을 내세워 2연승에 도전했다.

1962년 창단 이후 55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휴스턴은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우승 청부사 저스틴 벌랜더를 출격시켰다.

휴스턴은 벌랜더가 5회 후 아웃까지 다저스 타선을 노히트 노런으로 공공 묶으며 승기를 가져가는 듯 했다.

휴스턴 타선도 3회 선취점을 올리며 벌랜더를 도왔다.

벌랜더에 막혀 0-1로 끌려가던 다저스는 작 피터슨이 5회 2사에서 솔로 홈런을 때려내며 동점을 만들었다.

6회 2사 후에는 테일러의 볼넷에 이어 코리 시거의 좌월 투런포로 역전에 성공했다.

전날 다저스의 6회말 상황과 데자뷰를 이루는 장면이었다.

당시 2사 후 테일러가 볼넷으로 출루했고, 저스틴 터너의 결승 투런포가 터지면서 1차전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다.

이번 포스트시즌 들어 철벽 불펜을 자랑하고 있는 다저스의 2연승이 예상되는 순간 휴스턴이 8회 선두타자 알렉스 브레그먼의 2루타로 무사 2루의 천금 같은 기회를 잡았다.

로버츠 감독은 마무리 캔디 잰슨을 투입하며 뒷문 단속에 나섰다. 카를로스 코레이에게 중전 적시타를 허용하며 1점 차로 쫓겼다.

9회에도 잰슨이 마운드를 지킨 가운데 휴스턴 선두타자 마빈 곤잘레스가 잰슨을 상대로 좌중간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동점 솔로포를 때려내며 다저 스타디움에 찬물을 끼얹었다.

잰슨을 무너뜨리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간 휴스턴은 10회초 다저스의 바뀐 투수 조쉬 필즈에게 호세 알투베가 역전 홈런을 뽑아냈다.

이어 코레이의 백투백 홈런까지 터지면 승부에 쐬기를 박는 듯 했다.

그러나 다저스도 경기를 이대로 내줄 뜻이 없었다.

10회말 아시엘 푸이그가 총알 같은 홈런을 날리며 끈질기게 승부를 끌고 갔고 키케 에르난데스의 적시 2루타로 끝내 동점을 만들어냈다.

다 잡았던 승리를 놓친 휴스턴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또 한 번 반격에 나섰다.

연장 11회 볼펜 경합이 적은 다저스 브랜든 맥카시를 상대로 카메론 메이빈이 안타를 치고 나간 뒤 도루까지 성공하며 흔들었다.

이어 스프링어가 맥카시의 4구제를 때려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휴스턴 조지 스프링어가 연장 11회초 결승 투런 홈런을 때려낸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가운데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2점 홈런으로 연결하며 승기를 잡았다.

7-5로 앞선 휴스턴은 연장 11회말 다저스에게 1점 차 추격을 허용하긴 했지만 승리를 지켜내며 시리즈 전적 1승 1패로 균

형을 이뤘다.

다저스와 휴스턴의 월드시리즈 3차전은 28일 오전 텍사스주 휴스턴 미닛메이드 파크에서 열린다.

/뉴시스

휴스턴 알투베-마이애미 스탠튼, 행크 애런상 수상

휴스턴 알투베-마이애미 스탠튼, '행크 애런상' 수상호세 알투베(휴스턴 애스트로스)와 지안카를로 스탠튼(마이애미 말린스)이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공적력을 보여준 타자에게 주는 '행크 애런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됐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2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휴스턴의 월드시리즈 2차전에 앞서 2017 행크 애런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올 시즌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에서 각각 알투베와 스탠튼이 2017 행크 애런상을 수상했다.

알투베는 153경기에 출전해 타율 0.346 출루율 0.410 장타율 0.547 24홈런 81타점을 기록했다. 타율 1위에 올랐으며, 204개의 안타를 때려 4년 연속 200안타와 함께 이 부문 리그 1위를 기록했다.

스탠튼은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150경기에서 타율 0.281로 저조했지만 59홈런 132타점으로 두 부문 모두 리그 1위에 올랐다.

행크 애런상은 애런이 베이브 루스의 개인 통산 최다 홈런(714개)을 넘어서지 25주년(1999년) 제정됐다.

애런을 비롯한 명예의 전당 멤버인 로베르토 알로마, 조니 벤치, 크레이그 비지오, 에디 머레이, 로빈 윌슨, 켄 그리피 주니어가 패널로 참가하며 팬투표 결과를 반영해 양 리그에서 한 명씩 수상자를 선정한다.

/뉴시스

한화서 댄 로저스, 넥센 유니폼 입는다

한화 이글스에서 KBO리그를 경험한 메이저리그 출신 투수 에스밀 로저스(32)가 넥센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게 됐다.



넥센은 28일 로저스와 역대 구단 외국인 선수 최고액인 총 15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로저스는 192cm, 90kg의 체격에 150km대 직구를 비롯해 커터와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등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한다. 결정구로 사용하는 커터는 수준급으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한화의 대체 외국인 투수로 KBO리그에 데뷔한 로저스는 그 해 10경기에 등판해 6승 2패 평균자책점 2.97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출신다운 투구로 완투 4차례, 완봉승 3차례를 거두며 인상적인 활약을 선보였다.

로저스는 7월 오른쪽 팔꿈치 인대질환 수술을 받았고, 1년 여의 재활을 거친 후 지난 7월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 산하 트리플A 팀인 시라큐스 치프스와 계약했다.

올 시즌 7경기에 등판해 3승 2패 평균자책점 3.18을 기록한 로저스는 현재 컨디션과 실전 감각 유지를 위해 도미니카 공화국 윈터리그에서 뛰고 있다.

2009년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데뷔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뉴욕 양키스 등을 거치면서 메이저리그 통산 210경기에 등판해 19승 22패 평균자책점 5.59를 기록했다.

마이내리그에서는 통산 130경기에 등판해 40승 35패 평균자책점 4.39를 기록했다.

/뉴시스

'마스터스·디오픈 티켓 잡아라'

'아시아 태평양 아마추어 챔피언십' 6명의 한국 선수 출사표

메이저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와 '디오픈' 출전 기회가 걸린 '아시아 태평양 아마추어 챔피언십'에 6명의 한국 선수가 출사표를 던졌다.

28일부터 나흘간 뉴질랜드 웰링턴 로얄 웰링턴 골프코스(파72·7219야드)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아마추어 챔피언십이 열린다.

아시아 태평양 골프협회(APAG), 영국 왕립골프협회, 오거스타 내셔널이 공동 주최하는 이 대회는 아시아 지역 골프발전과 아마추어 육성을 목적으로 한 최대 골프 대회다.

지난 대회는 인천에 있는 잭니콜라우스 CC에서 열렸다.

우승자에게는 내년 마스터스와 디오픈 본선 진출권이, 준우승자에게는 디오픈 예선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올해 대회에는 아시아골프를 대표하는 39개국 120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각국에서 2명이 출전하며 나머지 출전 명단은 월드 아마추어 랭킹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별 최대 출전 인원은 6명이며 개최국은 10명까지 출전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8월 ICB금융그룹 대구경북오픈 2라운드에서 8언더파를 몰아친 장승보를 비롯해 이원준, 이창기, 하진보, 오승택, 김성현이 출전한다.

지난해 대회에서 8위로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이원준은 연습라운드를 마친 후 "그린이 많이 구겨진 모양이며 언덕이 많아 공을 어디로 보낼지 잘 계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시아 태평양 아마추어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장승보(왼쪽부터), 이창기, 오승택, 이원준, 김성현, 하진보

뉴질랜드에 오를랜드에서 살고 있는 이창기는 "2016년도에 로얄 웰링턴에서 경기 해본 경험이 있어 코스가 익숙하고 좋은 성적을 낼 자신 있다"며 각오를 밝혔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활동하는

호주교포 이민지의 남동생인 이민우도 호주 대표로 나선다.

이민우는 'US 주니어 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자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